충남도립대학교 합격수기

2021년 세종경찰청 2차 합격수기
안녕하세요! 2021년 2차에 합격해서 현재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11기 이○○입니다. 학교에서 선배들의 합격수기를 보며 꿈을 키워왔는데 이제는 제가 합격수기를 후배분들에게 쓰니 감회가 새롭고, 영광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제 경험들을 공유해볼게요!

필기

저는 처음에는 경단기 커리큘럼을 쭉 따라왔고 그 이후 불합격하고 다시 준비할 때는 기본서와 기출문제집 이 두 개만 계속 돌렸습니다. 저는 적으면서 외우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오로지 읽기만 하면서 공부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필기시험은 정말 마지막 한 달에 기본서 전체를 세 번 이상 돌릴 수 있으면 무조건 합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서 세 번을 한 달 안에 다 돌릴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그동안 회독을 하면서 휙휙 넘길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익숙하게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경단기에서도 7421법이라고 마지막 한 달 안에 7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2일에 한 번 그리고 마지막 하루 전에 한번 이렇게 기본서를 4번 회독하고 들어가면 무조건 합격한다고 하셔서 저도 이 방법을 했습니다!
평소에 공부할 때는 기본서랑 기출문제집을 처음엔 그냥 읽고 그다음에는 잘 모르겠거나 다시 읽고 싶은 부분만 노란색으로 줄 그어놓고 또다시 읽을 때 잘 기억이 나지 않았던 부분은 주황색 또 다음번에는 분홍색 이렇게 체크해 놓아서 마지막에는 분홍색 체크한 부분만 보고 시험장에 갔어요.
그리고 학과 교수님들께서 학교 수업을 실제 시험 위주로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평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실제 시험처럼 출제되었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시험만 열심히 준비해도 졸업하고 도움이 정말 많이 될거에요. 덕분에 학교를 졸업해서 공부할 때도 법 과목은 익숙해서 항상 고득점이 나왔지만, 영어 때문에 탈락의 고배를 많이 마셨어요.. ㅎㅎ 이번에도 법 과목 점수가 높아서 다행히 붙었답니다..

체력

체력은 학원에 다니시는 걸 추천해요. 얼만큼 내려가야 센서가 찍히는지 감각도 알아야 하고 경험 있는 선생님들이 파울 자세도 가르쳐 주세요. 또한 제일 큰 이유는 혼자 하는 운동량이 실제 학원에서 하는 운동량을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필합하고 체력학원을 등록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그나마 시험 전년도에 체력학원을 1년 정도 다닌 적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지 아무 베이스 없는 상태에서 필합후 다닌다는 건 불합격이 확실하니 꼭 미리 운동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늦게 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2-300개씩 윗몸 팔굽혀펴기와 근력운동을 하고 와서도 남아서 추가로 2-300개 더 하고 악력 운동도 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합격수기보면 필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들 그러는데 정말입니다..
그냥 입장권만 끊은 것이고 체력 면접이 훨씬 훨씬 힘들고 스트레스가 열배예요.
그리고 학원에 가서도 선생님은 그냥 가이드만 잡아주실 뿐 하는 건 오로지 내 몫인 것 같아요. 가끔 주변 보면 선생님이 나를 잘 신경 써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남아서 더 하든 먼저 가서 물어보든 본인이 혼자 노력해서 얻어내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혼자 꾸준히 더 연습해서 처음 학원 갔을 땐 팔굽혀펴기 열 개도 못했는데 시험장에선 만점찍고 제일 힘들었던 천 미터 달리기도 6분대였는데 만점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체력에서 뒤집히거나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 꼭 열심히 운동해 주세요!

단체면접 (원래는 5명씩 들어가는데 마지막 조라 4명이서 들어갔어요)

<주제> 인천사건에서 여경의 직위해제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찬반으로 나누어 토론해 봐라.

: (먼저 정당하다고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셨는데 제 옆의 세분이 다 드셨길래 그래도 토론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아 저 혼자 반대로 갔습니

다-이때 손 들었다 내리면서 양보하는 모습 어필했어요)
저는 현재 교육과정에서 현장 대응 물리력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위해제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중앙경찰학교에서 테이저건을 한번 발사하는데 카트리지 교체 비용이 4만원이나 들어 각 학급당 5명밖에 테이저건 훈련을 하지 못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장 대응 물리력 훈련이 더 강화되어야 하고 정당하지 않다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추가 질문)

1.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라

: 5년 동안 부모님 식당 도와서 아르바이트 해온 것, 충남도립대에서 캠퍼스폴리스 활동한 것, 충남에 있는 15군데의 지구대를 돌면서 선배님들과 인터뷰한 것을 열정으로 어필했습니다.

2. 충남에 있는 15개의 지구대를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뭐였냐

: 저는 아산에 있는 온양지구대를 방문했을 때 지구대 팀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교통 근무를 하면서 사고로 인해 식물인간이 되신 동료분을 얘기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는데 실제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경찰청 홈페이지의 경찰 영웅이라는 게시판을 들어가 보니 교통 근무를 하시다가 돌아가신 경찰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통 근무를 할 때 트래픽 브레이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운전자와 경찰관 그리고 2차 사고까지 예방하여 경찰관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 악성민원인이 지구대에 와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일단 시원한 물을 한 잔 드리면서 진정시켜 드리고 최대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면 도와드리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면 다른

기관에 연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다른 기관 어디에 연계하겠다는건가?

:민원인이 요구하시는 일이 경찰의 업무가 아니면 시청이나 군청에 연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아까(단체면접)에서 카트리지 교체 비용이 4만 원이나 들어 테이저건 훈련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지?

: 제가 지난번에 치안박람회에 다녀왔었는데 VR로 실제 현장처럼 상황을 만들고 제가 장비를 선택해서 직접 대응해보는 훈련을 체험해 봤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VR기술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만약에 직장 상사가 학연이나 지연 등으로 승진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라고 한다면 하실 건지?

: 평소 같았으면 당연히 양보해 드렸겠지만, 학연이나 지연 등은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상사분께 정중히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때 앞 세분은 모두 학원에서 배운 '양보'라는 단어에 꽂혀서 무조건 양보하겠다고 하셨는데 면접관분께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불법적인 일이라고 언급하니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하셨습니다. 너무 긴장되는 장소이다 보니 무조건 학원에서 외운 대로 하기보단 면접관의 말과 상황을 파악하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개별면접 (방이 1번 방 2번 방으로 나뉘어 있고 면접관이 달라요. 홀수 짝수로 순서가 되면 각각 들어갔어요.)

-자기소개는 안 물어보고 처음에 긴장 풀어주겠다면서 자연스럽게 사전 조사서 내용으로 면접 들어가셨어요.

1.사전조사서에서 먼저 합격한 친구들을 보고, 주변에서 그만두라고 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경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셨다고 적었는데 이 친구들

과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는지? (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럼 이 합격한 친구들이 실제 경찰 생활을 하면서 힘들다고 하는 것 3가지를 말해보세요.
(사실인지 파악하시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상상해 온 경찰관의 일과 실제 업무가 너무 달라서 괴리감이 든다고 했고 가정폭력이나 아동 학대 현장에 나갔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힘들다는 것과 주취자를 상대하는 것이 힘들다고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2. 가정폭력이나 아동 학대 현장에서 힘들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라.

:(이때 당황해서 앞 내용 반복했어요) 제가 아직 일반인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지만, 가정폭력이나 아동 학대 현장에 나가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3. 수험기간이 오래되셨는데 왜 오래 걸린 것 같으신지?

: 제가 하나하나 다 정독하고 이해되어야만 다음 진도로 넘어가는 성격 때문에 복습이 중요하고 범위가 넓은 경찰 시험에서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4. 그래도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하나하나 다 해오면 되지 않나?

: 압박에 당황해서 앞의 답변과 비슷하게 대답했더니 그냥 넘어가 주셨습니다.

5. 수험기간 동안 공부 말고 다른 일 한 거 있는지?

:봉사도 꾸준히 해왔고 부모님 식당을 도와서 아르바이트도 병행해 왔습니다.

6.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한 것이 있는지?

: 태권도 1단과 합기도 2단을 취득하였습니다.

7. 4단도 아니고 그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닌지?(압박하셨어요.)

: 그거 외에도 평소에 조깅도 하고 자전거 타기도 즐기는 편입니다.

8. 본인이 지금 시한부다. 한 달 남았다고 생각하고 주변인 한 명을 정해서 영상 편지를 해봐라.

:엄마에게 했고 지금까지의 감사함과 한 달 남았지만, 경찰관이 되어서 꼭 효도하겠다고 했어요.

9. 그게 시한부가 할 말인가? 다시 기회 줄까?(압박)

: 달라고는 했지만, 너무 당황해서 이때 횡설수설해서 면접관분이 끊으셨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침착하려고 유지했습니다.

10. 경찰관이 되면 후에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하실 건가?

:저는 이제까지 모든 시험을 다 충남청만 응시해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충남청에서만 일을 할 것입니다.

11. 만약 본인이 지금 합격을 하지 않고 수험기간이 10년이 된 상태에요. 그래도 계속 시험공부를 할 것인지?

: 저는 아직까지 경찰관 외에 다른 직업은 꿈도 꿔보지 않았고 오랜 시간 준비해 왔기 때문에 10년이 지났다고 해도 경찰관을 계속 준비할 것입니다.

12. 그 외에 대학 전공이 뭐냐고 물어보셔서 경찰행정이라고 했더니 만족하시는 눈치였어요.

전체적으로 실제 면접 현장에 있던 저는 압박이 매우 심했다고 느껴졌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응시자분들도 나오면서 목을 긋는 제스쳐를 하거나 절레절레하시면서 망했다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실제로 저도 생각지도 못한 질문과 압박이 많이 들어와서 끝나고 결과 나오기까지 일주일 내내 불안해하고 떨어질 것 같다고 울고 그랬습니다..ㅎㅎ
이렇게 보면 질문이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도 실제 면접장의 압박감과 면접관들의 압박 말투, 그리고 보통 자기소개서를 위주로 면접을 준비하는데 자기소개서를 묻지 않고 그 외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이 들어온다는 것에서 준비한 것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저희를 당황하게 만들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필기와 체력 합해서 0.7 배수였던 제가 면접으로 뒤집어서 지금 1차 입교로 중앙경찰학교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붙고 나서 되돌아보니 단체면접에서는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지, 면접관의 말을 잘 알아듣고 말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이고 개별면접은 답변의 내용보단 그 사람의 태도, 압박에도 당황하지 않는지 표정 관리와 침착함이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또한 본인의 무기를 어필 할 수 있는 키워드를 잡고 밀고 나가셔야 해요. 저는 그동안 봉사를 많이 해와서 봉사와 직접 15개의 지구대를 발로 뛰며 만든 무기를 열정을 키워드로 잡고 어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거의 다 왔으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